

## 〈책은 마법이야〉 그림책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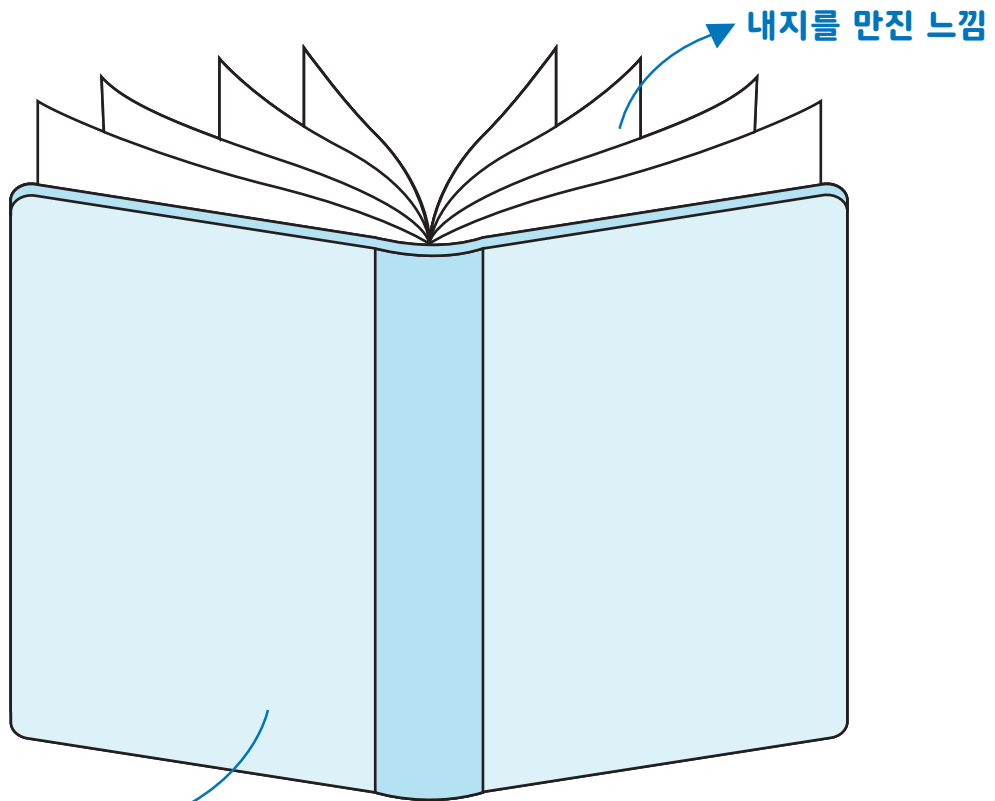


나를 반짝이게 하는 책의 마법



## 손끝으로 책을 느껴 봐!

책마다 만졌을 때 느낌이 달라요. 먼저 좋아하는 책 한 권을 골라 보세요.  
눈을 감고 책 구석구석을 손끝으로 만져 보고, 느낌을 아래 예시에서 골라 보세요.



표지를 만진 느낌 ▲

▲ 내지를 만진 느낌

예 미끌미끌해요 매끈매끈해요 반들반들해요 말랑말랑해요  
폭신폭신했어요 부드러워요 보송보송해요 딱딱해요 뽀뽀해요 거칠거칠해요  
까끌까끌해요 오돌토돌해요 차가워요 따뜻해요 도톰해요 얇아요

**TIP** 책마다 냄새도 조금씩 달라요. 책에 코를 대고 쿵쿵 냄새도 맡아 보세요.  
※ 주의! 지독한 냄새가 날 수도 있음



# 그래, 바로 이 책이야!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  
주어진 글귀를 읽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책 제목을 빈칸에 적어 보세요.

✦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책 ✦

---

✦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

---

✦ 열 번도 넘게 읽은 책 ✦

---

✦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한 책 ✦

---

✦ 크리스마스가 되면 생각나는 책 ✦

---



# 찾았다! 신비한 책의 마법

책을 읽다 보면 입가에 미소가 피어나기도 하고,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기도 해요.

책을 읽으며 느꼈던 '책의 마법'을 아래에서 골라 색칠해 보세요.

꼬르륵  
배가 고파져요.

용기가  
불끈 솟아요!

속상한 기분이  
잠시 사라져요.

책을  
읽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킁킁  
웃음이 나요.

여행을 떠난  
기분이 들어요.



마음이 울렁울렁  
조금 슬퍼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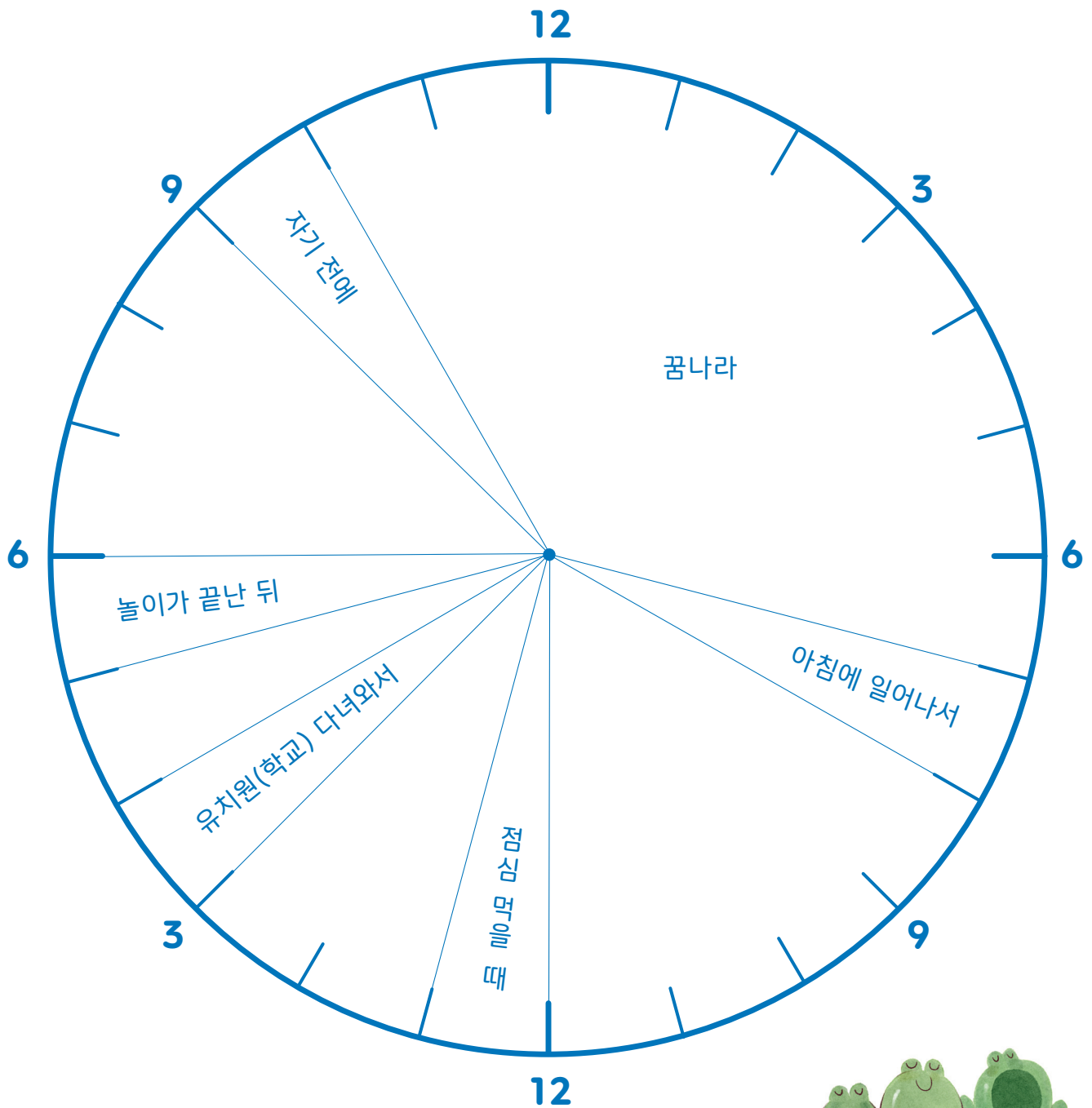
잠이  
슬슬 와요.



## 책의 마법이 필요해!

바쁘게 흘러가는 나의 하루 속, 책의 마법이 필요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아래 일과표에서 찾아 색칠해 보세요. 책의 마법이 필요한 나만의 시간을 좀 더 찾아봐도 좋아요.





## 이럴 땐 어떤 책?

속상할 때, 화날 때, 걱정될 때... 책을 읽으면 마음이 나아지기도 해요.  
아래 상황을 읽고,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생각해서 제목을 적어 보세요.

**방학인데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 집 밖은 추워서 나가기 싫어.**

---

**입이 심심해. 뭔가 먹고 싶은데, 늦은 밤이라 먹으면 안 된대.**

---

**엄마가 동생만 예뻐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어. 엄마가 미워.**

---

**갑자기 이유 없이 화가 나. 크게 소리치고 물건을 마구 던지고 싶어.**

---

**같은 반 아이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초대를 못 받아서 속상해.**

---



## 무릎을 탁! 치는 제목

평범한 낱말들을 가위로 오려 이리저리 섞어, 특별한 제목을 지어 보세요.

책 제목이 완성되면, 이야기도 저절로 떠오를 거예요.

제목 :

예

용감한

아이스크림



용감한	카우보이
느림보	거북이
커다란	눈사람
반짝반짝	돌멩이
차가운	아이스크림



소르베북스는 입가심처럼 일상의 환기가 되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 일상의 환기가 건강한 마음의 성장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르베북스

〈책은 마법이야〉 그림책 활동지는

소르베북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orbetbooks.com](http://www.sorbetbooks.com)

전자우편 [sorbetbooks@naver.com](mailto:sorbetbooks@naver.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sorbetbooks>

인스타그램 @sorbet\_books

©Sorbet Books X Mijade Publications